

공모 한달 전남도립미술관장 왜 발표 안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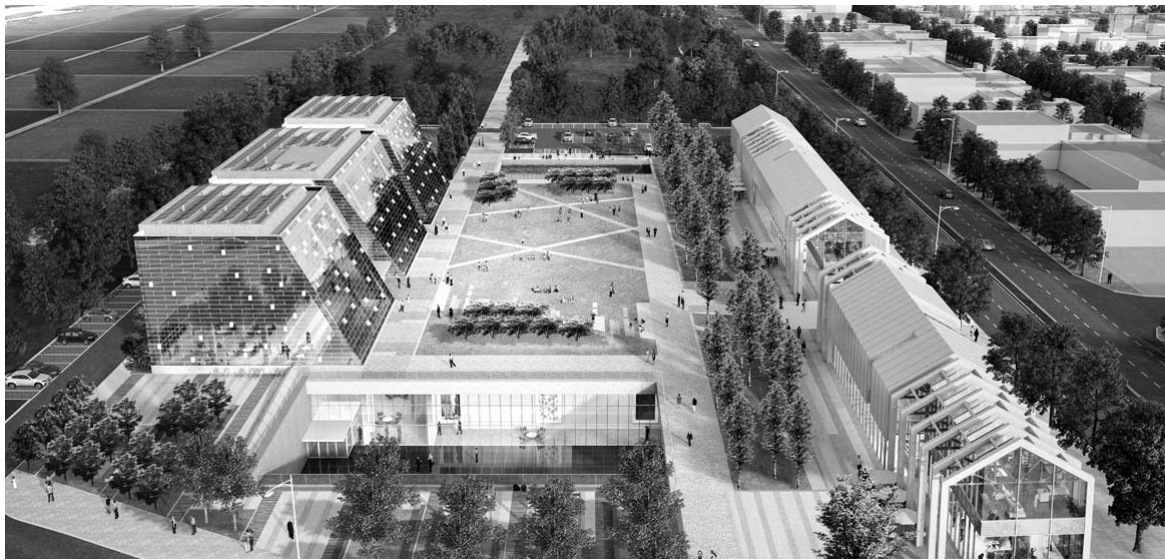
인사위 후보 2명 임명권자에 추천 전남지사 1·2위 후보 다시 면접 도 “검증기간 길어져...이벤주 인선 예정”

새롭게 문을 여는 전남도립미술관 선임과 관련, 공모 심사가 진행된 지 한달이 다 되기도 한 임명권자를 발표하지 않아 지역 문화계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광양시 옛 광양역사 1만 158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세워지는 전남도립미술관은 지난해 9월 착공했으며 내년 10월 개관 예정이다.

지난 2015년 부지를 확정하고 개관을 준비해 온 전남도는 최근 미술관 개관을 책임질 전남도립미술관 개관준비단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개관준비단장은 미술관 운영·발전계획 수립·시행, 미술작품 및 자료 수집·전시 등 도립미술관 개관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미술관이 문을 열면 도립미술관장직을 맡게 된다. 전남도립미술관장의 임기는 2년이며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 11일 개관준비단장 서류 접수를 시작한 전남도는 지난 3월 4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류전형에 합격한 17명을 놓고 심사위원회를 개최, 성적 순으로 3명의 후보를 압축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했다. 3명의 후보는 현직 국립미술관장을 비롯해 전직 국립미술관 관계자며 이중 한명은 지역 출신이었다. 이후 인사위원회는 2명의 후보를 임명권자인 전남도지사에게 추천했다. 보통 공모의 경우 임명권자가 추천된 후보자 중 적임



오는 10일 개관 예정인 전남도립미술관의 신임 관장 발표가 늦어지면서 문화계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광양에 문을 열 전남도립미술관 조감도.

자를 낙점하는 게 관례나 이번 공모와 관련해서는 전남도 지사가 1위와 2위 후보에 대해 다시 면접을 실시하면서 문화계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여기에 26일 한 중앙지를 통해 후보자 중 한명이 신임 관장으로 뽑힌 것처럼 보도됐지만 1일 현재까지도 관장을 발표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과업을 맡게될 신임관장의 역할이 막중해 청렴성이나 리더십, 지역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과정이 길어져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검증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이번 주 안에는 신임관장을 인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도지사가 개별 면접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임명을 마친 전남도립국악단 관계자의 경우에도 임명권자가 직접 면접을 했다”며 “역량있는 인물을 뽑기 위해 임명권자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 50억원의 작품 구입비를 확보한 전남도립미술관은 최근 김환기의 ‘항구’ (1966), 천경자의 ‘아프리카 마켓’ (1969) 등 미술사적 의미가 큰 전남 출신, 연구 작가의 대표작품들을 구입하는 등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국가무형문화재인 가산오광대 공연 장면.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신청

2022년 12월 등재 여부 결정

문화재청은 ‘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탈춤’은 유네스코 사무국 검토와 평가기구 심사를 거치며 오는 2022년 12월께 열리는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탈춤은 무용, 음악, 연극의 요소가 모두 들어있는 종합예술이다. 관객

의 동조나 아우 같은 능동적인 참여까지 포함된다. 특히 전근대의 사회, 계급, 도덕적 모순을 역동적이고 유쾌하게 풍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어 등장인물 성격을 과장해 의미와 재미를 선사하면서도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한다.

탈춤의 국가무형문화재로는 양주별산대놀이, 북청사자놀이, 봉산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등 13건이 지정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지난 2018년 남백이 공동 등재한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을 포함해 20건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집에서 어린이미술관 만나 보세요”

국립현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수·목요일 유튜브 채널 공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온라인 미술 프로그램이 찾아간다.

국립현대미술관(MMCA)은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미술관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5편을 1일부터 매주 수요일

과 목요일 홈페이지(mmca.go.kr)와 유튜브 채널(youtube.com/MMCAKorea)에서 차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마르셀 뒤샹, 박서보, 안규철, 최정화 등 총 4편으로 구성된 ‘어린이를 위한 집에서 만나는 미술관’은 현대미술을 어린이(6-13세) 눈높이로 쉽고 재미있게 소개한다. 어린이용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사 전기아트 ‘만나서 반가워’도 함께 제공된다.

/연합뉴스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참여하세요”

문체부, 전자책 무료 대여 행사

4월 한 달간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을 무료로 대여하는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행사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1일 교보문고와 함께 인터넷 상에 전자도서관 ‘책 쉽터(book.dkyobobook.co.kr)’를 개설하고 이날부터 한 달간 1인당 최대 2권까지 전자책과 소리책을 무료로 대여한다고 밝혔

다. 대여 도서는 4만7000여종, 80만권으로 국민 누구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인들에게 책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종이책도 무료로 제공한다.

오는 10일까지 열흘간 매일 500명씩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00권을 지원한다. 지원 도서는 출판진흥원 책나눔위원회에서 선정된 7개 분야 84종이다.

/연합뉴스

시립합창단 감독 성희룡 발언 수사...나주 예술계 잡음

시 운영사업 지역예술인 배제 논란도

나주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의 성희룡 발언과 관련한 경찰 수사, 시의 지역 예술인들을 외면한 편파적인 공모 사업 운영 논란 등 나주 예술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주시립합창단 A예감감독(60)이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룡 발언을 하고 괴롭수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나주시 관계자는 1일 “합창단 지휘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하려고 했지만 경찰수사로 넘어갔다”며 “지난달 30일부터 경찰이 인지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계약 내용 등 지휘자와 관련된 자료를 경찰측에 보낸 상태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경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부터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A감독은 올 1월과 2월 반주자에게 “지휘자를 오랜만에 봤으면 달려와 안아주면서 반겨줘야 할 게 아니냐”는 발언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룡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A감독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단원들은 2017년부터 추석 상품권 20만원 상당을 시작으로 설 명절과 추석, 스승의 날, 생일, 특정 기념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23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을 상납했다고 밝혔다.

나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국책 공모사업이 나주음악협회 회원 등 지역예술인의 참여와 소통을 외면한 채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2019지방공공 문화공감사업 생활문화콘텐츠 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 나주시민오케스트라 공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는 강사공모 절차를 생략한 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활동했던 외부인사들로 강사진을 짰던 데 이어 올해 사업 역시 공모 절차 없이 지난해 활동했던 강사를 그대로 채용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나주음악협회(회장 이종수) 등 음악계가 반발하자 시는 강사 채용을 공모로 돌렸지만 문제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음악협회는 입장문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시의 처사는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해온 지역 음악인들의 역량과 예술혼을 무시한 처사”라며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이 외부 강사를 일방적으로 불러들인 것에 대해 해명과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잘 마무리된 사업 성과를 잇기 위해 지난해 활동했던 강사를 뽑으려했으나 문제 제기를 받아 들어 공모로 변경했다”며 “사업진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고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면 감사를 통해 밝힌 후 징계를 내리겠지만 징계할만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양인모·홍진호 등 클래식 스타 수·토요일 유튜브 릴레이 음악회

크레디아 ‘미트 더 아티스트 라이브’

공연기획사 크레디아는 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자사 유튜브를 통해 소속 뮤지션들이 릴레이 음악회를 이어가는 ‘미트 더 아티스트 라이브’(Meet the Artists Live)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일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를 시작으로 첼리스트 홍진호, 피아니스트 지용, 현악사중주단 에스메 콰르텟, 클라리네티스트 김한 등 한국, 미국, 독일 등에 거주 중인 크레디아 소속 뮤지션 10명이 연주자로 나선다.

연주자들은 미리 준비한 연주와 신중 곡 연주를 들려준다. 온라인 공연은 매주 수요일 밤 10시, 토요일 오후 3시 등 주 2차례 진행된다.



첼리스트 홍진호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h3>무크 광주세점점</h3> <p>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2층 258호 회사한 볼 신상품 대량입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p>	<h3>천상일월태주명</h3> <p>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p>	<h3>자연모가발 안병원헤어샵</h3> <p>동구 롯데백화점점,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남여 가발 맞춤 전문! 중형가발을 자연모 신상품으로 중요 리폼·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p>	<h3>동양철학원</h3>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당옆길) 사주, 격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h3>국수나루 광주용봉점 (비엔날레)</h3>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주문 (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h3>남문냉동</h3> <p>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p>	<h3>풋젠광주센터</h3> <p>동구금남로474차과연전철역부근 3번출구 거동이 불편하신분, 어깨·허리·무릎·관절이 불편하신분 풋젠 자석 쿠션 신발 ☎ 062)232-6625, 010-3640-6625</p>	<h3>남악장례식장</h3> <p>전남 무안군 심함읍 남악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요양병원 1층 최신시설 완벽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 영가제공 ☎ 061)285-0444</p>
<h3>김동일쉐프</h3> <p>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입구 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곱창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환영 ☎ 062)228-1975, 010-9622-8938</p>	<h3>우리뷔페</h3> <p>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 오픈!! 청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강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p>	<h3>개성전통한방삼계탕</h3> <p>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p>	<h3>자동차 밧데리 할인마트</h3> <p>북구자미로12(신안동128-7번지) 무료출장 ☎ 062)252-1119, 010-9881-2922</p>
<h3>광명천막기업</h3> <p>북구 천변우로 285-1(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파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p>	<h3>유가네한우곰팡이 광주대인점</h3> <p>동구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고 진한 곰팡이맛! 한우맑은곰팡,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464-1425</p>	<h3>연아불교용품</h3> <p>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1-1 (영산포구역전앞)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웃, 양초 판매 ☎ 061)334-0088</p>	<h3>천을귀인</h3> <p>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19 (산수동) 궁전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 ☎ 010-7186-6894</p>
<h3>고전방</h3> <p>동구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h3>박당화랑</h3> <p>동구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		